진보·화합·복지…종단·단체들, 신년하례서 '다짐'

진각종, 1월 2일 신년하례불사
능원 정사 "감동 교화 실현을"

태고종, 1월 7일 신년하례법회
상진 스님 "화합으로 종단 중흥"

전국비구니회, 1월 5일 신년하례
'비구니회원장' 본격 운영 알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태고종은 1월 7일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월 5일 '불기 2570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진각종, 태고종을 비롯한 종단과 단체들이 신년하례를 열고 병오년 새해에도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월 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다목적홀에서 '진기 80(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불사'를 봉행했다.

총인 덕일 대종사는 신년법어를 통해 "화합이란 온 우주와 나의 합일이자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원융무애의 세상"이라며 "혁신은 화합을 근본 바탕으로 하며, 참회를 통해서 바르게 완성된다"고 설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신년사에서 "32대 집행부가 내건 인재양성, 재원확보, 시스템 구축으로 감동교화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에 맞게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되도록 원력을 모아 진각대도의 길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에 참석한 사부대중 100여 명은 통알 삼배 의식을 통해 부처님과 원로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이어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종단은 광화문 국제수계대법회와 영산재 시연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으며 중국불교계와 교류,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위상 재정립 사업 등을 통해 종단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다졌다"면서 "이는 한국불교 장자 종단으로서 태고종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바르게 세우려는 종도 모두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불교 의식을 전승해 온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뿌리였다. 의식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제수계대법회와 영산재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적통과 뿌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새롭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집행부인 호명 스님께서 잘 안정시켜 놓은 종단을 이제 진보해 나갈 일만 남았다"면서 "총무원은 종도 여러분과 함께 종단 중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년하례에 참석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고 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가게 됐다"면서 "저도 올해 큰 원력을 하나 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았듯이 경기도를 대도약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는 원력이다. 종단 대덕 스님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그 원력이 이뤄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월 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불기 2570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원로의장 일법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해는 늘 뜨고 지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각자 저마다의 서원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병오년 한 해 동안 세운 뜻들이 장애 없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소임에 매진해 온 스님들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자 대표"라고 인사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회원 스님들의 노후 안정과 장례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국비구니회원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조직을 확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광용 스님, 장례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은 혜욱 스님,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장은 정관 스님, 기획·교육위원장은 지인 스님이 위촉됐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펴낸 책 〈역사 속 한국비구니〉가 수상한 불교출판문화대상 트로피를 부처님전에 봉정하기도 했다.

종교편향특위, '종교 중립 위반' 모니터링·후속 조치 강화

12월 30일 제6차 회의서
현황 점검 · 활동 방향 논의
특위 새 위원장 보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과 종교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언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2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그간의 종교편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공공시설 사유화 및 종교편향적 행위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 차원의 입장문 발표와 홍선기 종평위원의 기고 등을 통해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현재 세계청년대회 지원과 관련해 발의된 3건의 특별법안은 모두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도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종교편향특위와 종평위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특히 종평위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11월 19일 "독립기념관 시설을 절차 없이 무상 제공하고, 관장이 종교의식에 직접 참여한 것은 공공기관장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부



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권고했고, 실제 12월 9일 실시됐다.

이에 종교편향특위 스님들은 종교편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포교사단과 국제포교사회, 공무원불자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현장 상황을 폭넓게 공유하고, 종교편향 사안 발생 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광 스님의 동화사 주지 선출로 새롭게 임명된 위원장 보화 스님은 "종교편향 행위를 사후에 인지해 대응하면 조치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철회·사과·사퇴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탄보 스님도 선언적 대응에서 그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종교편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김 관장은 예배 참여를 지속하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이 있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나 삼보일배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경 스님도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진 초기에는 (불교계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원 스님은 "입장문과 함께 논설 기고나 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종단 내부와 사회 전반에 경각심과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과 교구본사, 지역 신행단체가 협력한 모니터링 구조를 갖추는 것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도 "다종교 사회이자 법치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국가적 특혜는 분명한 문제"라며 "각 사찰이 이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인식하고, 종단과 사찰,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성우문도회 정운 스님 승려복지기금 3200만원



비구니 수좌로 평생을 수행 정진했던 성우 스님의 상좌인 정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은사 스님의 유훈을 잇고자 승려복지기금을 쾌척했다.

성우문도회장 정운 스님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15년 전 입적한 성우 스님이 남긴 유산으로, 그동안 문중에서 보관해 오다 승려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뜻이 모여 전달하게 됐다. 선방 수좌 스님들과 도움이 절실한 스님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